

물길은 모두 이어진다

안 현 경

여름 방학의 끝자락에, 서울 친구가 놀러왔었다. 기껏 부산까지 놀러왔다니 여기 저기 끌고 다니며 재미있는 걸 많이 보여주리라 며칠을 두고 별렀던 나는 짐을 푸는 친구에게 의기양양하게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대답은 참 맥 빠지는 단어였다.

“을숙도.”

“을숙도? 다른 재미있는 곳도 많은데?”

“부산에 오면 꼭 가보고 싶었어. 철새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거든.”

이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을숙도란 초등학교 소풍마다 뺑질나게 드나들었던 자전거 타는 공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서울 친구가 왜 지방에서 수학여행을 오면 에버랜드에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듯, 우리 동네 사람들은 왜 서울에서 여행을 오면 을숙도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한다. 애는 도대체 무슨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부산까지 와서 새떼나 보고 가겠다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간절한 눈빛에 떠밀려 열무김치에 국수를 말아 대강 점심요기를 때우고 짐을 나냈다. 그런데 몇 걸음 걸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탄성을 올렸다. 새떼다, 하고.

“그게 신기하니, 우리는 늘 보는 풍경인데.”

“저렇게 많이 모여서 즐깁니까? 처음 봐, 저건 무슨 새야?”

“갈매기겠지, 요 바로 앞에 괴정천이라고 하천이 하나 있어서 거기만 가도 새는 엄청 날아다녀.”

나의 심드렁한 대답과는 대조적으로, 친구는 얼굴이 활짝 피더니 그럼 을숙도 가는 길에 잠깐 괴정천에 들렀다가자고 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다. 하구 교차로에서 하구 뚝으로 올라서지 않고 곧바로 난 길로 3분가량만 걸으면 되기에 거리는 문제 될게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서울 친구에게 부산의 이미지라는 것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괴정천은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새들이 정신없이 날아다녀서 촌 동네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방향을 틀었다.

괴정천의 모습이 보이면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여름엔 냄새가 더 심하거든, 누구한테 하는지 모를 변명을 하면서 거의 뛰다시피 해 도착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차도 양쪽으로 작은 배가 몇 척 대어져있고, 그 배위에, 물 위에, 하늘에 하얀 새들이 가득히 박혀있고, 강바람에 흔들리는 풀꽃들. 늘 보는 풍경이라 난 별 감흥이 없는데 친구는 카메라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그걸 왜 찍어! 여긴 더러우니까 찍지 마!”

“왜? 정말 예쁜데…….”

을숙도로 가는 낙동강 하구 독에서 보는 낙동강이 훨씬 깨끗하고 멋있다고 어르고 달래서 겨우 카메라를 떼어놓았다. 교차로에 도착하기까지 내내 친구는 멋진 풍경을 마음대로 찍지도 못하느냐고 투덜거리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더러운 곳을 찍어가서는 서울 아이들에게 부산 이미지를 이상하게 심으면 어떻게 하냐고 입을 빼죽였다. 하구 독의 입구인 낙동 남로 위로 올라간 후에도 조금 더 걸어야 낙동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할 거리도 찾지 못하고 친구와 나는 묵묵히 걷기만 했다. 가뜩이나 햇볕이 이렇게 따가운데 이게 뭐람, 하며 슬슬 짜증이 고개를 들 무렵,

“와아! 여기 바다야?”

드디어 수평선이 나타났다.

“아니, 낙동강. 이렇게 흘러서 다대포 앞바다로 가.”

강이 이렇게 넓구나, 몰랐어, 그냥 바다인 줄만 알았지 뭐야, 친구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오른쪽 난간으로 붙어 서서 새들이 물에 둥둥 떠 있다고, 거북이가 보인다고 소리를 질러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물속으로 고개를 디밀고 고기를 찾고 있는 오리 떼,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갈매기가 하나, 둘... 하구 독 11개의 기둥에는 가끔, 물결이 부딪히며 뽀글뽀글 올라오는 흰 거품 사이로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거북이들이 보였다. 시선을 멀리 두면 을숙도 공원이 보였다. 차도를 건너 왼쪽 난간으로 고개를 돌리면 바다로 흐르는 낙동강 위로 햇빛조각들이 반짝반짝 흩어졌다. 낚싯대를 드리운 아저씨들도 많았다.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던 친구가 물었다.

“아까 그 조그만 하천도 이리로 오는 거야?”

“괴정천? 그럴걸, 물길들은 모두 이어져있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낙동강으로 들어오겠지.”

“물길은 모두 이어져 있다고? 기분 묘한데. 낙동강은 어디서 시작될까?”

“나 알고 있어. 작년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던 장자못 전설 있잖아. 그 장자 못이 낙동강의 발원지래.”

뭐, 하고 친구가 너무 소리를 커다랗게 질러서 하마터면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다.

“옥성리 장자못?”

“옥성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그 장자못. 왜 그래,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놀라서 떨어질 뻔했잖아, 하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가 한 옥타브는 더 높아진 목소리로 외쳤다. 거기 우리 아빠 고향이야. 아빠도 할머니한테서 들은 옛날이야기가 그것 밖에 없어서 술만 드시면 장자못 이야기를 해주셔. 백번도 넘게 들었어. 그런데 아빠의 고향에서 흐르는 물이 네 집 옆에서 흐르는 물이랑 섞여서 여기를 흐르고 있잖아.

“가보자.”

어딜, 하고 묻지도 않고 우리는 괴정 천으로 뛰었다. 가슴이 쿵쿵 울리는 게 느껴졌다. 저기 머나먼 충청남도의 장자 못에서 시작해서, 우리 집 옆의 괴정천이 한 데 섞여서, 물은 물과 이어지면서 여기 낙동강으로 흐르는구나. 어쩌면 나는 아주 멋진 풍경들을 놓치고 살아온 게 아닐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차를 타고 지나

가면서,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져놓고선 냄새 난다며 코를 싸쥐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굴다리 아래를 지나 냇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물살이 날라다 놓은 흙 위로 옴죽옴죽 돌아있는 새순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한구석에 누군가 작은 파발을 일구어 놓았다. 괴정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수면 위로 물고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잘 보였다. 이제 보니 쓰레기로 냄새가 고약한건 다리 주변뿐인 것 같았다.

얼마쯤 가다보니 길이 끊겨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까치발을 들면 괴정천의 냇물이 낙동강의 큰 물줄기에 섞이어 흘러가는 게 보였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리고 보니까 수학학원으로 가는 길에 복개도로라고 있어.”

“복개도로?”

“개천을 덮어서 길로 만든 거야. 만든 지 한참 됐는데 어렸을 때는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나. 개구리 잡고 물고기 보고.”

그냥 뵈더라면 다른 물줄기가 또 이 낙동강으로 흘러왔을 텐데, 어쩌면 나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의 물줄기가 나로부터의 물줄기와 섞이는 이 벅찬 두근거림을 한 번 더 느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다음 말은 그냥 하지 않았다. 아-하며 친구가 다시 물줄기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물을 필요도 없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깝다.”

“그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 섞이고 엉키는 물줄기를 보면서 그날 해가 꼬박 넘어갈 때까지 서 있었다.

방학숙제가 바빴던 친구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갔다. 기차역까지 바래다주겠다니까 뜬금없이 괴정 천에 들어서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군말 없이 그리로 향했다. 여전히 냄새가 심했지만 이번엔 짜증나기 보다는 미안했다. 몇 번이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친구가 렌즈를 하늘을 날고 있는 흰 새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예쁜 곳에서 살아서 좋겠다, 하고.

나도 이제야 알았어, 고백하고 싶기도 했지만 꼭 눌러 담고 말했다.

“사진 나오면 나도 보내줘.”